

| Bi-Weekly |

신영ESG

“ EU PPWR 본격 시행으로 기업엔 기회와 리스크로 작용할 것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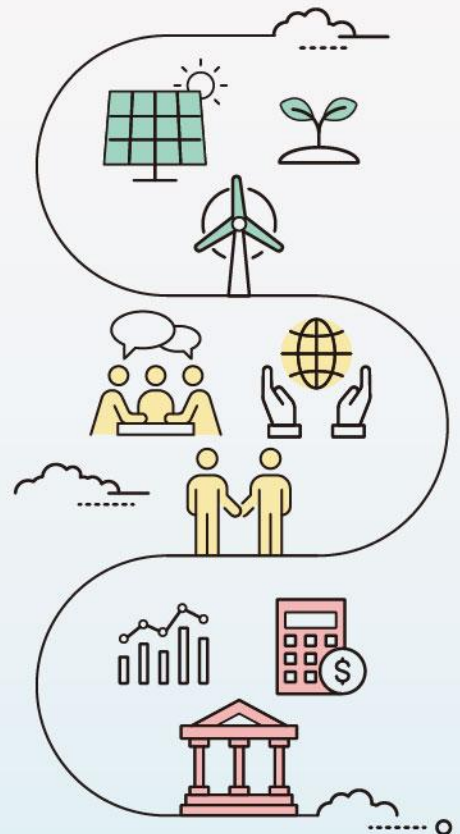
ESG 탐방 노트

KCC

ESG ETF 따라잡기

AXS Green Alpha ETF (NXTE)

ESG News Clipping



EU PPWR 본격 시행으로 기업엔 기회와 리스크로 작용할 것

EU의 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시행되며 EU로 수출하는 기업도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EU, 8월 12일부터 강력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본격 시행

EU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 본격적으로 시행됨. 기존의 느슨했던 지침(Directive)과 달리, 이번 규정은 별도의 국내법 입법 없이 27개 회원국에 예외 없이 직접 적용되는 강력한 법령(Regulation)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도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PPWR은 EU 그린딜(Green Deal)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전략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포장재 폐기물 감축, 재활용 촉진, 자원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됨. 이 규정은 단순히 폐기물 관리를 다루는 환경 규제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포장재 사용, 재사용, 재활용, 라벨링까지 전 주기를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임.

주요 규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은
- 1) 유해물질 제한, 2) 포장 최소화 및 과대포장 금지,
 - 3) 재활용 가능성 의무화,
 - 4)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5) 표준화된 라벨링 도입,
 - 6) 재사용 의무화,
 - 7) 바이오 기반 포장재 및 퇴비화 가능 포장재 사용 등임

1) 유해물질 제한: 포장재 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대 중금속의 합산 농도가 100mg/kg 이하로 제한함.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피자 박스, 테이크아웃 용기 등)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비의도적인 혼입까지 엄격히 단속됨.

2) 포장 최소화 및 과대포장 금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이중 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공간 구조는 원칙적으로 금지. 특히 제품 부피 대비 빈 공간 비율(Empty Space Ratio)은 최대 50% 이하로 유지해야 함.

3)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의무화: 2030년부터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 평가(A~E)를 받아야 하며, A~C 등급만 출시가 허용됨. 재활용 점수가 70% 미만인 D·E 등급은 시장 진입이 전면 금지.

4) 재생원료(Recycled Content)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2030년부터 포장 유형에 따라 최소 10%~35%의 재생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최대 6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

5) 표준화된 라벨링 도입: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 재질 구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된 픽토그램 및 QR코드(디지털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됨.

6) 재사용 의무화: PPWR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회수·세척·리필·재충전 과정을 거쳐 동일한 용도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는 포장'으로 정의하고 재사용 포장은 내구성, 위생성, 추적 가능성 등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사용 주기 동안 폐기물 최소화, 재사용 수명이 종료된 후에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재사용 가능’ 라벨을 부착하고, QR코드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해 재사용 시스템·수거 지점·사용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7) 바이오 기반 포장재 및 퇴비화 가능 포장재: 2028년까지 포장재 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정. 또한 티백, 과일·채소 부착 스티커 등 특정 포장 형식은 산업용·가정용 퇴비화 조건을 충족해야 함.

도표 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주요 일정



자료: 유럽의회, 법률신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우 먼저 공급망 전반의 서류(DoC, TD등)를 확보해야 함

규제가 시행으로 국내 수출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포장재 제조업체뿐 아니라 원자재 공급사로부터 중금속 및 PFAS 미검출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및 공급사 선언서인 적합성 선언서(DoC)를 우선 확보해야 함. 또한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기술 문서(TD)도 확보해야 함. 이러한 서류는 일회용 포장재는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장감시기관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도표 2. PPWR의 DoC, TD의 역할과 주요 내용

구분	적합성 선언서(DoC)	기술 문서(TD)
역할	제조자가 해당 포장의 적합성을 공식 선언	포장재가 PPWR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주요내용	포장 식별번호, 제조자 정보, 적용 법령과 규격, 서명과 발행일	포장 설명과 용도, 도면, 재료와 구성품, 적용기준, 평가방법, 계산 자료, 시험 보고서
작성기준	PPWR 제 39조 및 부속서 VII	PPWR부속서 VII
관리방식	변경사항을 반영해 최신 상태로 유지	설계, 재질, 공급업체가 바뀌면 영향 재검토

자료 : KOTR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은 업종별, 자본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규제를 ‘비용’이 아닌 ‘시장 지배력 강화’의 무

기'로 보고 선제적 투자 집행함. 유럽 패키징 및 글로벌 대형 소비재 기업들은 이미 상용화 제품 단계에서 PPWR의 핵심 요건인 원천 감량, 단일 소재화, 재생 원료 함량 충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로레알, 유니레버, P&G, 코카콜라 등 대형 소비재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PPWR 가이드라인에 맞춰 포장재 가치사슬을 혁신해 왔음. 예를 들어 복합 플라스틱 소재를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소재로 바꾸고 있으며, 공급망 내 유해물질(PFAS 등) 검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사에 '적합성 선언서(DoC)' 제출을 강제하고 있음. PPWR 제도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 및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존 신재(Virgin) 플라스틱 생산 중심에서 화학적 재활용 및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음. 특히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물성 저하, 오염)를 극복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고온·고압으로 분해해 다시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열분해 유화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반면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2026년 8월부터 요구되는 중금속·PFAS 규제 관련 서류(DoC, TD 등) 확보에 급급한 상황으로 알려지는 등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PPWR 시행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투자 테마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재생원료 의무화로 인해 재생원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됨

8월 12일 제도 시행에 따라 EU 내 모든 포장재는 PFAS 및 중금속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함. 그런데 PFAS는 방수·방유 기능 때문에 포장 코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로 인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PFAS-free 대체 포장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다양한 소재와 포장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A~E로 표시되는 재활용 등급제로 인해 진입 장벽이 시각화 될 것이며 D~E 등급의 퇴출은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임. 무엇보다 재생원료 의무화로 인해 재생원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됨. 벌써 일부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특히 식품 등급 PCR-PET, PCR-PP)의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원료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재사용 의무로 인해 일회용의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특히 가전이나 이커머스 배송 시 빈 공간 비율이 4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포장 방법의 변화와 다양한 규격의 포장 용품이 공급되면서 포장 기술 발전이 전망됨. 제조기업은 단순 마케팅용 패키징에서 벗어나 제품 기획 단계부터 부피를 줄이고, 복합 소재를 단일 소재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설계'로 전환해야 유통망 배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하이테크 대체 소재 및 패키징 장비 밸류 체인,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원료 및 선별 인프라 관련 회사, 포장 데이터 디지털화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함

이처럼 PPWR의 시행은 글로벌 패키징 공급망을 재편하는 투자 테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새로운 하이테크 대체 소재 및 패키징 장비 밸류 체인, 물리적·화학적 재활용(PCR) 원료 및 선별 인프라 관련 회사, 포장 데이터 디지털화(디지털제품여권 인프라 관련 SaaS, ERP)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KT, 재생에너지 사용 138% 늘렸지만 전환율은 5% 그쳐

- KT가 2025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138% 늘렸으나, 전체 전력 사용량 대비 전환율은 5%에 그쳐 2030년 목표치(56%) 대비 초기 단계에 머무름
- 재생에너지 조달의 94%가 녹색프리미엄에 편입된 구조로, 회사는 PPA 전력 사용량을 올해 28GWh로 5배 확대하고 자가소비형 태양광 인프라를 넓혀 조달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

Comments

- 2025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1,9만MWh로 전년대비 138% 증가, PPA 사용량도 5,628MWh로 832% 급증
- 다만 전체 전력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아직 약 5%에 그쳐, 사용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실질적인 전환 수준은 낮은 편
- KT는 앞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56%, 2040년 84%, 2050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PPA 등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가 핵심 과제임

- Analyst 정원석

중국발 공급과잉에 여천NCC 통합...아시아 석화업계 사업재편 확산

-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범용 석유화학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국·태국·일본에서 NCC 통합과 에틸렌 설비 감축이 본격화, 생산 효율 제고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가 사업을 통합하고 에틸렌 생산능력을 약 60% 감축, 정부와 채권단 지원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고부가제품 전환도 추진

Comments

- 태국과 일본 역시 올레핀 사업 통합과 설비 감축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탄소감축과 바이오원료 도입 등 친환경 투자도 병행
- 다만 중국의 증설과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공급 감축만으로는 범용 석유화학 시장 회복이 제한적이며, 향후 경쟁력은 고부가제품과 친환경 전환 여부가 좌우할 전망

- Analyst 신흥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다음 과제는...5%룰·주총제도 전면 손질

- 기관투자자 협력 관여 활성화·코드 이행점검 체계 강화
- 안전 조지공시·임원보수 실질 승인·해외주주 접근성 개선
- 2026년 7월 27일 10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적용 대상을 상장주식 중심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자산 등으로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요소로 확대, 기관투자자가 기업과의 소통과 관여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다른 기관투자자와 협력해 기업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됨.

Comments

- 스튜어드십코드(SC) 개정 이후 S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제안이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협력적 관여를 위해 5%룰의 '공동보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총 안전별 공동 의결권 행사까지 일률적으로 공동보유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 증가
- 주주총회 제도 개선도 논의가 되고 있음 → 주총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안전을 주총 3주 전에 전자공시 의무화, 임원보수 관련 승인제도 개선 등도 논의됨
- 하반기 첫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으로 이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 Analyst 오광영

KCC(002380.KS)

매수(TP 600,000원)

지배구조 개선 병행

현재주가(8/7) 442,000원

ESG 등급 현황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08. 07)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B+ A C		시가총액(억원) 37,981
Bloomberg 37.30 39.00 24.20 49.20		배당수익률(26F, %) 2.6
주: KCGS :S~D 7등급		외국인지분율(%) 20.3
Bloomberg: 100 만점 기준		주요주주 지분율(%)
		정몽진 외 13 인 35.6 %
		국민연금공단 9.3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4 -25.2 -4.4 14.8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4.6 -10.5 -22.3-40.8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단위	2024	2025	구 분	단위	2024	2025	구 분	내 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612	545	LTIFR	%	0.79	0.35	주주총회	1 주전 홈페이지 공고
폐기물 발생량	톤	36,480	26,005	기간제 근로자 비율	%	6.5	5.9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36	26	여성 근로자 비율	%	9.6	9.6	집중투표제	실시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획득			사회 공헌지출	억원	26.1	22.8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25 년 15,000 원 배당 지급
환경경영 조직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이사회 운영 실적	(2025 년 기준) 14 회

ESG 관련 최신 활동

KCC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수상 (매일경제, 26.01.23)	KCC, IR 챗봇 도입... 실시간 주주 소통 강화 (시장경제, 26.02.05)	KCC,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서 11년 연속 수상 달성 (오늘경제, 25.12.04)
- KCC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최하는 '2024 LACP 비전 어워드'와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각각 금상(Gold)을 수상 - 이번 수상은 KCC가 추진해온 애뉴얼 리포트인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높은 수준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	- KCC가 IR 챗봇 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투자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 챗봇은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배당금 조회, 공시 알림, 실적 발표 일정 등 핵심 정보를 키워드 기반으로 제공 - IR 페이지 개설(2023), IR 레터 발행(2024)에 이은 디지털 소통 확대 전략의 일환	- KCC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Korean Readers' Choice Awards) 제조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며 11년 연속 수상 영예 - 기존의 기업 중심 ESG 전략 및 성과 보고를 넘어,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이슈 중심의 보고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ESG history

연혁	내용
2012년	[G]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준법경영 체계 운영 시작
2015년	[ESG]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개
2022년	[ESG]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ESG운영팀 신설 및 ESG경영 선언문 발표
2023년	[E]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공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15% 감축, 2050년 100% 감축 목표 설정
2024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전략방향 및 11개 전략과제 수립 [E] Scope 3 온실가스 관리 확대 [G] IR 전담조직 및 전용 홈페이지 신설 등 주주 소통 강화
2025년	[G]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최소 DPS 6,000원과 별도 영업이익에 연계한 추가배당 정책 제시 2030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86% 이상을 목표로 설정
2026년	[ESG] 전 사업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공급망 관리정책 제정,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확대 [G] 이사회 역량지표 최초 공개 및 CP 평가 AA등급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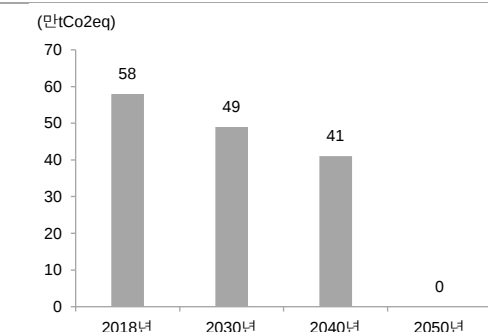
ESG 전략 - 관리체계 고도화 지배구조 개선 병행

KCC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ESG 관리체계를 경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음. 2026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공급망 관리정책 제정, 제품별 탄소배출량 관리와 함께 이사회 역량지표를 신규 공개하는 등 ESG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음. 특히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7명 중 사외이사를 4명으로 구성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는 한편,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권익과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진행 중임.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86.7%로 15개 지표 가운데 13개를 충족하고 있음

자본배분에 관한 관심

KCC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보유 투자자산의 활용과 주주환원이라는 자본배분 문제도 함께 거론됨. 매도가능보유주식에 관한 처분을 두고 시장의 요구가 있었음. 이에 당사는 향후 투자목적 자산을 적정 시기에 매각하고 매각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는 동사가 제도 정비를 넘어 주주가치 중심의 자본배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임. 향후 비핵심 투자자산의 유동화 시기와 규모, 확보 재원의 차입금 상환 및 주주환원 배분 원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시기에 거버넌스 할인을 넘어 기업 가치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도표 1. KCC 탄소중립 로드맵



자료: KC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KCC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사업연도	준수 항목	준수율	전년 대비
2023	10 / 15개	66.70%	-
2024	11 / 15개	73.30%	+6.6%p
2025	13 / 15개	86.70%	+13.4%p

자료: KC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XS Green Alpha ETF

(NXTE)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8.06)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2/09/27	TSMC ADR	11.57%	(USD)	(운용자산(우) NAV(좌))
BM지수		SK HYNIX	9.06%		
구성종목수	60	ASML HOLDING	6.31%	(USD)	(운용자산(우) NAV(좌))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50.60	APPLIED MATERIALS INC	4.83%		
시장가격(USD)	46.15	LAM RESEARCH CORP	4.42%	(USD)	(운용자산(우) NAV(좌))
NAV(USD)	46.00	CONTEMPORARY AMPEREX TEC	4.21%		
총보수(%)	1.00	INTL BUSINESS MACHINES CORP	3.93%	(USD)	(운용자산(우) NAV(좌))
운용사	AXS Investment	VESTAS WIND SYSTEMS	3.55%		
		CRISPR THERAPEUTICS AG	3.13%	(USD)	(운용자산(우) NAV(좌))
		ABB LTD SPON ADR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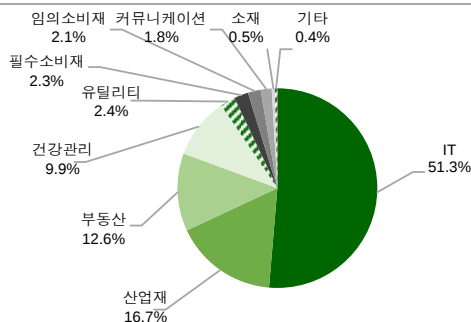
ETF 개요

AXS Green Alpha ETF(NXTE)는 2022년 9월 상장된 ETF로, 전통적인 ESG 투자방식과는 달리 차별화된 차세대 경제(Next Economy)접근법을 통해 차세대 그린 알파 투자를 하는 Active ETF임. 차세대 경제 접근법에 따르면 먼저 투자 대상 기업을 매출과 자본 지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핵심 요소(경제 생산성 향상, 재생 에너지, 폐기물 가치 전환 공급망, 부의 공정한 분배)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지 평가함. 이후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헌신도와 상대적인 사회 및 지배구조적 가치를 기준으로 추가 평가함. 또한, 기업의 규모, 업종, 산업,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 분석과 상향식(Bottom-up) 분석을 통해 최종 투자 대상을 선정함. NXTE는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요소에서 발전하고 있거나 시스템 차원의 위험을 더 많이 해결하는 기업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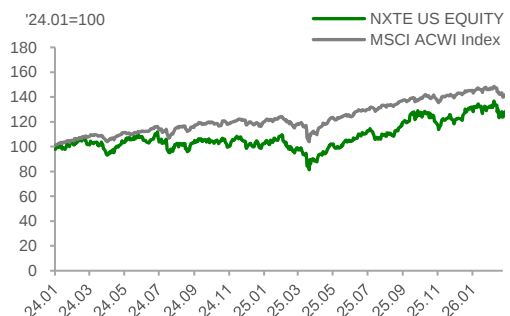
NXTE는 차세대 경제 접근법을 통해 기업 중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성장성과 가치 투자 특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경제에 맞는 알파 기업에 투자하는 Active ETF임. 핵심적인 글로벌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고 경제 생산성은 향상시키는 평균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글로벌 기업 중 ESG 특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

NXTE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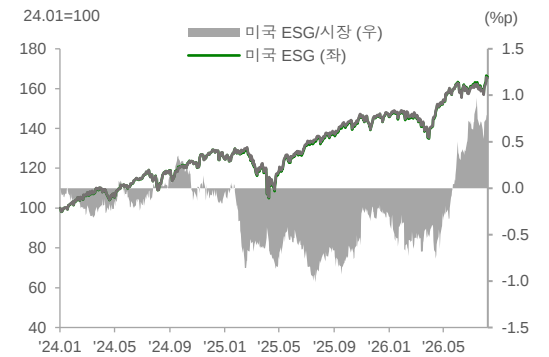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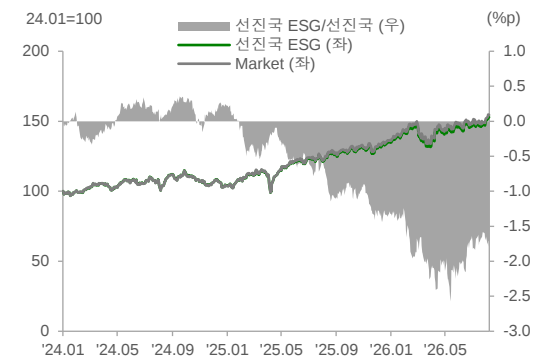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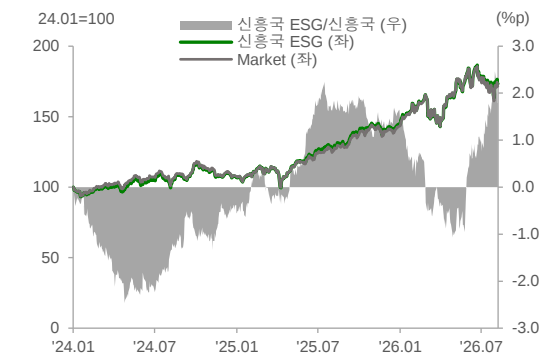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신중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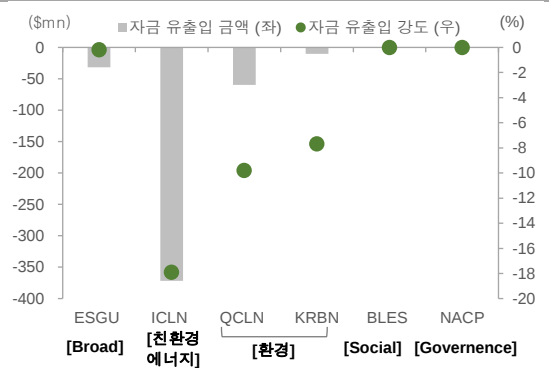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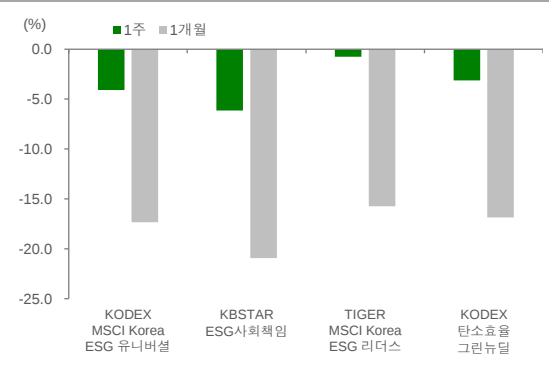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7,126	60	75.8%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7,427	13	13.6%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50	13	5.4%	13.4%
4 Social	6,169	5	4.8%	5.2%
5 Governance	469	3	0.4%	3.1%
6 기타	51	3	0.0%	3.1%
ESG 전체	128,192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8,252	2.9	2.6	5.8	12.1	-31	630	-0.2	3.5
	ESGV	13,514	3.2	2.8	5.5	12.7	-28	144	-0.2	1.1
	SUSL	1,213	3.3	3.4	5.5	12.2	27	46	2.2	3.8
	NULV	2,259	2.7	3.8	6.5	10.9	18	-4	0.8	-0.2
	NUSC	1,323	2.7	2.3	6.5	8.2	18	-140	1.3	-10.6
	ESGE	6,667	0.5	-0.7	-2.8	8.3	21	54	0.3	0.8
	ESGD	12,140	1.6	3.1	4.6	4.4	0	-9	0.0	-0.1
	EAGG	4,984	0.1	-0.8	-1.5	-2.7	47	713	0.9	14.3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075	3.0	-6.4	-12.5	-2.5	-371	60	-17.9	2.9
	TAN	1,310	4.1	-6.3	-14.0	-10.8	-190	330	-14.5	25.2
Environment	QCLN	608	4.5	-6.5	-12.0	3.8	-60	5	-9.8	0.9
	SPYX	2,857	3.0	2.9	5.4	11.4	24	49	0.8	1.7
	CRBN	1,173	2.5	2.3	3.7	8.9	13	61	1.1	5.2
	KRBN	131	1.3	1.6	7.2	6.1	-10	-42	-7.7	-31.8
Social	BLES	163	1.4	3.0	3.7	7.0	0	12	0.0	7.2
Governance	SHE	334	3.0	3.5	7.4	18.0	0	-7	0.0	-2.1
	NACP	76	2.9	1.0	6.6	17.0	0	1	0.0	1.9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99	0.0	-16.6	14.2	55.2	0.0	-29.8	0.0	-14.9
FOCUS ESG 리더스	73	-0.8	-10.0	-6.5	16.9	0.0	-53.2	0.0	-73.0
KODEX 200ESG	1,775	0.2	-17.7	18.0	61.8	-42.7	628.6	-2.4	35.4
KBRIS ESG 사회책임	6,721	0.3	-19.7	18.7	66.1	2,301.6	4,127.1	34.2	61.4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39	0.0	-17.1	17.4	61.6	12.2	12.2	5.1	5.1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71	-0.1	-18.2	16.4	53.9	0.0	-50.7	0.0	-29.6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38	-0.9	-16.9	5.8	40.5	0.0	-169.9	0.0	-38.8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17	-0.9	-16.8	6.0	40.5	0.0	-18.5	0.0	-8.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16	-0.8	-17.0	6.5	41.3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8.07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SG

[\(26.07.16\) 딜로이트, ESG 투자 '재무적 가치' 입증 새로운 프레임워크 출시-Impact-on](#)

비용·매출·리스크를 현금흐름으로 바꾼다
감축비용 계산에서 'ESG 투자 포트폴리오'로

E (환경)

[\(26.07.13\) 롯데케미칼, 친환경 투자 재무제표에 담았다...고탄소 산업 기후대응역량 입증-Impact-on](#)

핵심포인트 ① 물리적 위험 노출액 정량화... 고탄소 산업의 재무적 리스크 투명하게 공시
핵심포인트 ② 재무제표로 들어온 기후 투자... 계정 과목 단위로 상세내역 공개
핵심포인트 ③ KPI 10% 연계 거버넌스 확보... 내부탄소가격 '단가' 공개는 속제
총평: 기후 공시는 화학업계의 생존 가르는 '척도'... 전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의 과제

[\(26.07.15\) 브라질, 에탄올 컨테이너선 첫 출항...해운 탈탄소 시장 노린다-Impact-on](#)

5년 새 14배 뚝 친환경선 시장...에탄올, 새로운 대안 부상
관건은 국제 탄소 기준...EU 규제도 변수

[\(26.07.15\) 친환경 연료 벽에 부딪힌 해운업계...LNG·바이오연료·원자력으로 눈 돌린다-Impact-on](#)

수소·암모니아 선박 연료 선호도 급감... 기존 선박 연료로 회귀 움직임
선주들 친환경 연료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의사 없어... 규제 불확실성에 투자도 보류

S (사회)

[\(26.07.14\) 세제·화장품 원료도 EUDR 영향권...BASF, 팜유 인증 조달 차질-Impact-on](#)

추적률 97.7%인데 인증 조달은 79.2%로 급락
파생물 인증률 8.4%...목표는 2030년으로 연기
소농 인증 늘려야 공급 부족 풀린다

[\(26.07.14\) LG·삼성 스마트TV 앱 34%서 화선 공유 코드...홈네트워크 보안 우려-Impact-on](#)

스마트TV 앱 6000개 분석...34%에서 화선 공유 코드 발견
외부 화선 중개 넘어 홈네트워크 공격 우려
아마존·로쿠는 금지...LG전자·삼성전자는 공개 금지정책 확인 안 돼

[\(26.07.21\) HD현대·한화오션, 조선소 고위험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직무전환은 과제-Impact-on](#)

사망사고 잇따르자...HD현대·한화오션, 고위험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
로봇도입 통한 새로운 리스크 발생 가능...충돌·협착 막을 안전체계 필요
해외는 로봇 도입과 기존 인력 재교육 병행...국내는 직무전환 계획 공백

[\(26.07.22\) 쿠팡, 인천 물류센터 판매자 피해 전액 보상...“실질적 지원 총력”-ESG경제](#)

로켓배송 입점 판매자 재고 손실까지 포함...경영불안 해소
불길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도 포함..1대1 상담 창구 운영

G (지배구조)

[\(26.07.13\) 호반 김상열, 조원태 지분 0.4%p 톡밀 추격...이번엔 대한항공 노리나-ESG경제](#)

아시아나 인수 추진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4년째 매집 20.15% 확보
계열사 통해 강내매수 지속...‘단순투자’ 해명에 시장은 ‘의문의 시선’
당장 경영권 도전 가능성 낮지만...추가 지분매입·주주총회 행보 주목

[\(26.07.20\) 삼성바이오, 폴리펩타이드 인수...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본격 공략-ESG경제](#)

인수가 2조7000억원...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대 최대 M&A
GLP-1·펩타이드 시장 진출...글로벌 CDMO 경쟁력 확대
항체약품부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까지...종합 생산플랫폼 구축

정책 ESG 뉴스

ESG

[\(26.07.20\) 한국 A법엔 탄소·노동 규제 없다...EU는 환경정보·인사 AI까지 관리-Impact-on](#)

AI 환경 대책 없는 한국법...EU는 환경 정보 공시 의무화
사회적 약자 보호...한국은 '이용 기회 확대', EU는 '차별 위험 통제'
노동 분야...한국은 '채용 중심', EU는 '인사 전 과정' 관리

E (환경)

[\(26.07.14\) EU, EUDR 품목 재편 위임규정 채택...가죽 제외·인스턴트커피 추가-Impact-on](#)

가죽·고무제품 빠지고 인스턴트커피·팜유 제품 추가
환경 편익 인정했지만 제외...2030년 재편입 검토
소규모 생산자 신고 간소화...시스템 장애 대응도 마련

[\(26.07.14\) AI 데이터센터에 '청정전력 90%'...美 주정부, 전력 조달규칙 다시 쓴다-Impact-on](#)

뉴욕, 5MW 이상 데이터센터에 2040년 재생에너지 90%
오리건·미네소타, 일반 가구에 비용 전가 못 하게 막았다
전력회사에서 사는 대신 발전소를 '직접 데려오는' 모델

[\(26.07.21\) EU, '40년 전기화 비중 46% 추진...전기요금 개편·히트펌프 2배 보급-ESG경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 현행 23%→2040년 46% 검토
전기요금의 4분의 1 차지하는 망 이용료 개편...전기 세금은 가스보다 낮게
산업·건물·수송 전기화 지원하고 전력망·저장장치·전문인력 확충

[\(26.07.22\) EU, 전기화 행동계획 발표...산업전환에 170조원·2040년 전력 비중 46%-Impact-on](#)

전력 70%가 청정에너지인데...전기화율은 10년째 23%
산업 에너지 수요 60% 전기화 가능...170조원 기금 투입
히트펌프 400만대 보급...저장장치 200GW로 확대

S (사회)

[\(26.07.13\) EU, 메타 '중독 설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정...인스타·페이스북 정조준-Impact-on](#)

EU집행위, 메타의 SNS 주요 기능 중독 유발한다고 판단... 자율 규제 조치 실효성 없어
메타, EU 예비조사결과에 반발... 최종 확정 시 연 매출 6% 과징금

[\(26.07.13\) 고용정책 성과평가, 취업·임금에 편중...사회적 변화는 시각지대-ESG경제](#)

OECD·EU 37개국서 사회목표형 고용정책 200여개 운영
취업효과 평가는 절반 넘지만 사회성과 평가는 10% 안팎

[\(26.07.1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올라-ESG경제](#)

함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으로 결정
2025년 1.7%, 올해 2.9%서 3년 만에 다시 3%대로

[\(26.07.16\) EU AI법 일정 늦춰도 공급업체 실사는 그대로...비EU 기업, AI 증빙 부담 커진다-Impact-on](#)

고위험 AI 일정 늦춰도 조달 심사는 계속
비EU 공급업체, AI 자산부터 증빙해야
구매·법무·보안 공동대응 필요

G (지배구조)

[\(26.07.15\) 중국, 매년 폐배터리 400만 쏠아지는데... 보조금 뿌려도 재활용 시장 걸도는 이유-Impact-on](#)

돈 안 되는 LFP 배터리 천국... 대기업마저 수익성 악화에 허덕여
블랙마켓이 장악한 수거 시장... 보조금 제도의 역설
해법은 EU식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과 디지털 여권 도입

일반 ESG 뉴스

ESG

[\(26.07.14\) AI가 연차보고서 쓰고 규제도 점검...영국 FRC '실험' 넘어 실무 안착 단계-Impact-on](#)

연례 보고서 작성부터 규제 모니터링까지... 활용 영역 급격히 확대
'AI 환각'과 데이터 보안 우려... 거버넌스 구축이 최우선 과제
사외 감사인에게 AI 접근권 부여 등 통제 프레임워크 진화

[\(26.07.22\) EFRAG, CSRD 보고서 905건 분석...기후전환계획 공시 69%, 실행력은 여전히 과제-Impact-on](#)

기후전환계획 공시 55%서 69%로...1.5도 목표는 57%
중요 ESG 주제 절반만 목표 설정...임원 보상 연계도 63%

E (환경)

[\(26.07.13\) 일본 통합보고서 1200개 돌파...투자자 신뢰받은 성공요인은-Impact-on](#)

일본 상장사 1200곳 이상이 통합보고서 발간
의무공시는 규제용, 통합보고서는 설득용
日 GPIF, '우수 지속가능성 공시 89개사 선정...아지노모토·이토추·히타치 최다 추천
"중요성 나열에 그치지 말고 재무 임팩트로 연결하라"

[\(26.07.14\)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4년... '평가'보다 '이행 관리'가 과제-Impact-on](#)

평가서만 존재하고 제재는 없다... 협의 이행의 '사각지대'
'규모' 중심 평가와 임의적인 의견 수렴도 한계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도 개선 과제

[\(26.07.15\) AI로 유럽 600대기업 10년치 보고서 분석해보니-Impact-on](#)

공시 지표 117개에서 180개로...오염·생물다양성은 여전히 공백
스코프1·2는 감소...스코프3는 5.6배 증가
여성 임원 늘었지만 직원 이탈·소득 격차 악화
오픈소스로 공개된 데이터... "그린워싱 감시 체계 작동할 것"

[\(26.07.15\) 유럽투자은행, 오스트리아 최대 그린수소 사업에 4억5000만유로 대출-Impact-on](#)

오스트리아 최대·유럽 5대 규모... 사업비 75% 단숨에 확보
배관 22km 깔아 정유공장에 그린수소 공급... 탄소배출량 10% 줄인다

[\(26.07.16\) 미국 '기후소비자'의 부상...160조달러 자산의 힘-Impact-on](#)

전기차는 줄었지만 '전동화 차량' 비중은 사상 최고
히트펌프·태양광·유기농...구매로 드러난 기후 수요
160조달러 가계자산, 구매보다 큰 기후시장 변수
기업의 기후전략, 규제에서 고객 분석으로

[\(26.07.20\) 인도 첫 수소열차 상업운행...89km 달린다-Impact-on](#)

화력 발전 대국 인도의 과감한 녹색 전환
높은 비용과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

S (사회)

[\(26.07.21\) 미 CSO 15년만에 첫 감소...핵심 흐름은?-Impact-on](#)

"신규 선임이 급감"...공석 방치·직책 폐지 늘어
CEO 직속 보고 33%→14%로 급감...법무부서 이관 늘어
"시장 불확실성·지정학적 변동성이 최대 도전"
"지속가능경영,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단계"

G (지배구조)

[\(26.07.13\) 배터리 스타트업, EV 대신 AI 데이터센터로...새 수요 잡는다-Impact-on](#)

1000분의 1초, 소도시 전력 증발... '그리드 한계' 뚫는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이온·고체전지, AI 데이터센터로 눈 돌린다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 (20260630)	매수 : 90.45%	중립 : 9.55%	매도 : 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KCC	-	-	-	-	-	-	-	-

